★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 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조선

주체111 (2022) 10

(796)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오늘의 조선

자 연

표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사진 전선일
뒤표지: 신평금강의 가을 사진 공유일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2


24


72


78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 천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주체111(2022)년 9월 8일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무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력사적위업이 달성되였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로 보나 공화국핵무력의 사명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핵무력정책이 법화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전체 대의원동지들이 가장 책임적인 시각에 가장 책임적인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민의 대표로서 국가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를 실현하는데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있는 대의원동지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은 높은 단계에로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의 더 큰 도전과 반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수 없으며 력사발전에서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어떠한 침략위협도 통할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위적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과 자위력강화가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정권을 《악마화》해놓기 위한 여론퍼뜨리기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입니다.

미국은 사상최대의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국가의 안정적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있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 하나의 안락을 찾기 위해, 직면한 오늘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적들의 간교한 설교와 끈질긴 압박에 못이겨 우리 공화국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며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하여 공화국발전사에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세대로 남아야 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것입니다.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빠났지 우리는 바쁠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환경하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미국의 야수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들씌워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비례하여 우리의 절대적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이 부닥치게 될 안보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있습니다.

공화국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며 바로 이에 대하여 오늘 국법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자주와 자존, 인민의 운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위해로 되는 적대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한다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우리 공화국이기에 이렇듯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담대한 정치적결단을 내릴수 있은것입니다.

세계는 패권주의가 더욱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이며 악의 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기상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간고하고도 기나긴 려정을 돌이켜보느라니 그 길에 응축된 만단사연들이 마쳐와 마음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성과는 실로 거대해도 전체 인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성원과 고귀한 피땀, 형언할수 없는 고생과 바꾼것이기에 더욱더 무겁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공화국핵무력을 건설하고 전투태세를 완성한다는것은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는 없었던 험난한 초행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작한 우리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해주고 천신만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다 떠맡아 이겨내며 일심전력으로 받들어주었습니다.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는데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크게 공헌하였지만 그처럼 모질고 지속적인 고생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승리를 굳게 믿어준 우리 인민이 아니였다면 핵보유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이렇듯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특출하고 열렬한 강인성과 애국심은 결국 온갖 난관을 딛고 이겨 우리 국가의 영광과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귀한 위엄을 하늘끝에 떠받들어올렸습니다.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정은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과 우리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전횡을 억제할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타격으로 됩니다.

공화국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폭제로부터 우리 령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여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람용되거나 불순한 리익실현에 도용되여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앞으로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해놓은것은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과 더불어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올해 공화국정부앞에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다져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사업이나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였지만 우리의 투쟁은 더 과감하고 전진적이였으며 보다 소중한 결실들을 낳았습니다.

건국이래 처음 맞다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온 세계의 의혹을 물리치고 전대미문의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속전속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이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자부심을 더해주고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활력있게 분투해나서도록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최대의 방역위기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지만 전체 인민이 추호의 비관과 락심, 공포와 절망도 없이 더욱 분기하여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입니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도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산계획수행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성격이 복원되고있으며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와 밑천들이 마련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업이 실용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전환하고 나라의 교육사업이 균형적으로, 실지 쓸모있는 인재육성방향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보건부문에서 그 어떤 방역위기,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는 귀중한 실천적경험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의미있는 개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투쟁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주객관적도전들을 물리치며 침체와 답보, 좌절을 모르고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에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동지들!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 공화국은 시대와 력사앞에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있으며 이는 보다 과감한 투쟁과 전진, 더 큰 승리를 요구합니다.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위협과 공갈, 제재와 유혹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핵무장을 완전해제시키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망상하는 적대세력들의 체질적본능이 개조되지 않는한 우리앞에 도사리고있는 도전과 장애는 절대로 가셔질수 없습니다.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우리 인민의 선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조선이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이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는가를 괄목할것입니다.

시련의 고비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의 특질입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법칙대로 앞으로도 계속 강해져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한길에서 변침을 모르고 목적한 투쟁과업들을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견지하고 집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과 발전들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전략적지위로 보나,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침략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섭니다.

최근년간 우리가 공개한 일정한 부문의 국방발전상을 보고 미국에 저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위구감을 느낀 미국은 지금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주변에 저들의 핵공격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엄중한 협박성무력시위행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 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제반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주변의 군사적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있다는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전략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견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새세대 무장장비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국가사업전반에 참답게 구현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주권활동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이 계속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민적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투철한 주적관, 대적관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계급의 전위투사,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5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사업실태와 현실적가능성에 토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련계, 자립적토대가 정비보강되여 나라의 경제전반이 장성궤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푸는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실지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여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밝힌바와 같이 2025년말에 가서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 4배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 3배이상 장성하는것으로 보아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고 다음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에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됩니다.

지금 우리앞에 조성된 경제적난관은 엄혹하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있는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을 내세우고 강력히 조직집행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들을 안아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다같이 추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을 옳게 조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것만큼 인민경제전반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장성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

내각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되는 중요부문들에 힘을 넣으면서도 다른 경제부문과 인민생활전반에 대하여 다 관심하고 책임지며 돌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체계와 질서가 점점 강하게 세워지고있는데 맞게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전반적실태를 단단히 걷어쥐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인 련계와 협동을 잘 지어주며 처지거나 뒤떨어지는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 국가경제사업의 균형성과 원활성, 효률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가까운 년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계속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 인민들의 물질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일관하게 내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도 말그대로 인민이 바라고 그려보는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 투쟁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여 인민들이 계속 고생하게 만든다면 그런 경제사업은 아무리 해도 필요없습니다.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를 푸는것입니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량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농사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것이 예견되므로 여기에 대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상기후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높고 안전한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게 종자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는것을 농사에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며 전국이 총동원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고 한해 농사에 소요되는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업생산전반을 따져보면서 그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서 편파성을 줄이고 안정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관개시설을 복구, 완비하는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달라붙어 마사지거나 로화된것은 복구정비하고 증설할것은 증설하면서 관개시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2～3년안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밀재배면적과 밀생산량을 늘이고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이를 계속 확대하는것과 함께 생산된 밀을 잘 보관, 가공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구조를 개선하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이자 곧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이며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밝혀진바와 같이 농촌을 진흥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는것입니다.

농촌혁명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개변시켜야 그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관철에서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을 넓혀주자면 농촌에 선진성, 현대성을 접종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모든 농촌을 부유한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뜨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수산업을 추켜세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바다어로, 바다양식을 활발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새끼물고기방류와 그물우리양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어활동을 대대적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정형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나가는것입니다.

소비품문제를 풀기 위한 경공업혁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

소비품의 질제고는 경공업혁명에서 종자이고 기본방향입니다.

당면한 계획수행에만 급급하면서 나날이 문명해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락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원료, 자재의 질적보장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따라세우고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공업을 추켜세워 지방이 변하고 자체로 발전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제구실을 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군내수요를 보장해나가는 실천적경험을 전국의 시, 군들로 확대하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설계와 시공을 비롯하여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들의 능력이 약한것만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린 다음에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고 초기투자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어 군내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며 확대재생산을 하여 공장을 자체로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기간공업부문이 응당 계속 기치를 들고 인민경제전반을 견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공업부문은 자립경제의 주추이고 기둥이며 이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야 인민경제전반이 용을 쓸수 있고 다음단계에로의 경제발전도 확고히 내다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공업부문들의 현대화와 능력확장,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경제실무적대책들도 계속 세워나가자고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정비보강전략에 따르는 계획들을 완강하게 집행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장성과 발전의 동력,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력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예견성있게 잘하여 각종 설비사고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생산소비적련계를 강화하여 기간공업부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절약이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점밑에 로력과 에네르기, 자재, 부지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현행생산에만 급급하는것은 보신이고 후퇴이며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을 설사 그것이 크든작든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후손들이 유감없이 향유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전하며 창조하는것을 신조로 하여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이라면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완강히 밀고나가야 하는것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온실농장건설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통이 큰 건설대상들을 마음먹고 전개해나가자면 중앙과 지방들에 능력이 큰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리고 마감건재를 비롯한 질좋은 건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는 지금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것은 천기를 다스리는것이며 치수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치수사업을 강바닥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것으로 그치고있는데 과학적인 중장기계획 다시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종체계를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면하게는 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력량과 기재를 모든 도, 시, 군들에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와 사방야계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도로개건을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와 관리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동지들!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재, 실지 능력있는 인재들과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재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교육사업이 질적수준에 있어서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실천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지향되지 못하고 순수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교육,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으로만 국한되다보니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실지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칠수 있게 학과목을 바로 선정하는 사업을 잘하며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의 실력을 월등하게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졸업생들을 유능하고 쟁쟁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교원, 학생들에게 교육조건, 실습조건,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국가적인 힘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고 기술인재자원을 효과있게 증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연구수단과 인재가 준비되여야 하는것만큼 국가적으로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바이지만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건수나 채우는 식의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1년에 다문 몇건이라도 나라의 경제를 실지 들어올릴수 있는 온전한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거점인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의 운영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실속있게 총화하면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성과들을 공유하고 흡수, 통보하며 과학기술자료들의 열람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 우수한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 평가하는 사업을 잘하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의료봉사사업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보건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의 현실태가 전면적으로 평가되였으며 그 수준과 능력제고의 절박성이 더욱 립증되였습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이 첫째라는 관점밑에 의료봉사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모든 의료품을 자체로 충당할수 없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품들을 수입해서라도 원만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품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신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 시, 군병원들을 일신시키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공산주의적인 풍모를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악성비루스박멸투쟁기간에 만사람을 감동시켰던 의료부문 일군들의 자기희생적인 헌신의 정신세계를 누구나 다 적극 따라배우도록 장려함으로써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뜨거운 심장으로 체득한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인민적이고 선진적이며 효률적인 의료봉사제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악성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것만큼 이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국가중대사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하여 제시된 과업들을 건별로 따져가면서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특히는 국가적으로 경내밖의 류동적인 전염병상황과 그 특성을 항상 긴장하게 주시하며 만약 그것이 류입되는 경우 즉시 발견하고 제압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

동지들!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뜨이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이상의 과업들을 관철하여 오늘의 자랑찬 승리를 사회주의건설의 더 큰 승리로 이어가자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며 자기 활동을 당정책실현에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강하게 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며 그만큼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권기관들은 자기 지역에서 존엄높은 공화국정권을 대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똑똑히 명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 지시를 전적으로 맡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주민들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게, 효률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이 모든 아이들, 모든 세대들에 골고루 빠짐없이 가닿도록 헌신적노력을 기울이며 먹는물문제, 땔감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들을 항상 알아보고 사소한 불편과 고충도 겪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분발,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군들은 말그대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직권이 아니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떠나 일군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이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 벌써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생이 차례지게 됩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위치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자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잠시도 헛눈을 팔지 말고 항상 중압감속에서, 긴장된 책임의식속에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감이 제기되면 회피하거나 적당히 굼뗄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솔선 온몸을 내대고 치밀하게 작전지휘하며 이신작칙의 기풍으로 투신하면서 훌륭한 결실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당과 인민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을 부단히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단련하며 혁명밖에, 일밖에 모르고 맡은 본분을 손색없이 해나갈줄 아는 진짜 필요한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이제 곧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4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 또 하나의 특대사변을 자기의 긍지높은 력사에 찬연히 아로새기였습니다.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더 높은 단상으로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류례없는 극난을 동반하고있으며 이제 우리 앞길에 또 어떤 도전이 막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추호의 주춤과 동요도 없이 분명코 전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며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업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로선도 모두 정의이고 진리이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당과 인민대중이 억척으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입니다.

동지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두다 한마음한뜻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특별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가 9월 7일과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8일에 진행된 2일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그이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밝힌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을 경건히 청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2일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대의원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담보로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강력한 핵무력우에 사회주의건설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키는데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국방건설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이 성취되는 력사의 순간을 가슴뿌듯한 긍지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향한 조선인민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력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가결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석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숭엄히 모셔져있는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 9월 8일 밤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였다.

만수대의사당과 인민극장사이에 특색있게 마련된 드넓은 경축행사장은 수도의 각계층 시민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경축행사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항공륙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경축행사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공화국창건일을 맞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경축행사에 초대되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경축행사 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사당의 기발게양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끓어오르는 긍지와 애국의 열정,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강국의 국기가 펄펄 나붓기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고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불패의 위력을 떨쳐가는 공화국정권의 위상을 비껴안고 수도의 한복판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한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대공연이 시작되였다.

예술인들은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높이 울린 인민의 노래, 사회주의찬가, 로동당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민족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된 인민의 크나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48
9.9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1948

2022













궁지와 환희를 담아싣고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였다.

출연자들은 노래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주체혁명의 산아로 솟아올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무진한 힘의 원천을 구가한 설화시 《빛나는 조국》이 숭엄한 격정, 고귀한 추억을 불러오며 뜨겁게 메아리쳤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라 경축행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할 충성과 애국의 일편단심이 맥동치는 공연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축포탄들이 련이어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는 속에 경축행사장은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몸소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열광의 환호성이 세차게 터져오르는 만수대기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끓어넘치는 애국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더 강대하고 더 찬란하게 시대우에 떠올릴 조선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충천한 기개, 끝없는 희열로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한없는 긍지가 끓어 가슴치고 노래하네


특별소식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경축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근로하는 인민의 삶과 투쟁을 행복과 명예의 단상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그이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불발의 노력을 경주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다하고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 정원에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헤아려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육친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해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보건사에 전무후무한 방역대승을 안아오시고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받드는 충성의 열정과 강인한 정신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성으로 최악의 보건사태를 성과적으로 제압하고 방역안정을 쟁취하는데 공헌한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준엄한 방역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며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한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 애국자들의 견인불발의 노력과 분투가 있어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이처럼 평온과 환희속에 성대하게 경축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방역진지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아픔과 시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운명을 함께 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충신들, 고마운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억척으로 받들어주기에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위업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임을 항상 자각하고 방역대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공고화하면서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역능력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발전과 온 나라 가정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지도

나라의 전반적인 재해방지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가 9월 4일과 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박정천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사회안전, 사법, 검찰부문 일군들,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행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자료보고를 제기하였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는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기 위한 재해방지투쟁에 떨쳐나선 전당, 전국,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분발시키고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며 량곡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량곡정책집행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진행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시고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각별히 관심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새로 만든 5, 500대의 농기계들을 도안의 농장들에 배려해주시였다.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이 농업부문을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과 완강한 기풍으로 생산돌격전을 벌려 수천대의 능률높은 새형의 농기계들을 훌륭히 제작완성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이 9월 25일 해주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도안의 당, 정권기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해주시민들, 청년학생들, 군수공업부문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가 전달사를 한데 이어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원경모동지, 배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진용동지, 벽성군 서원농장 관리위원장 안혜성동지, 연안군 오현농장 기계화작업반장 김은철동지가 토론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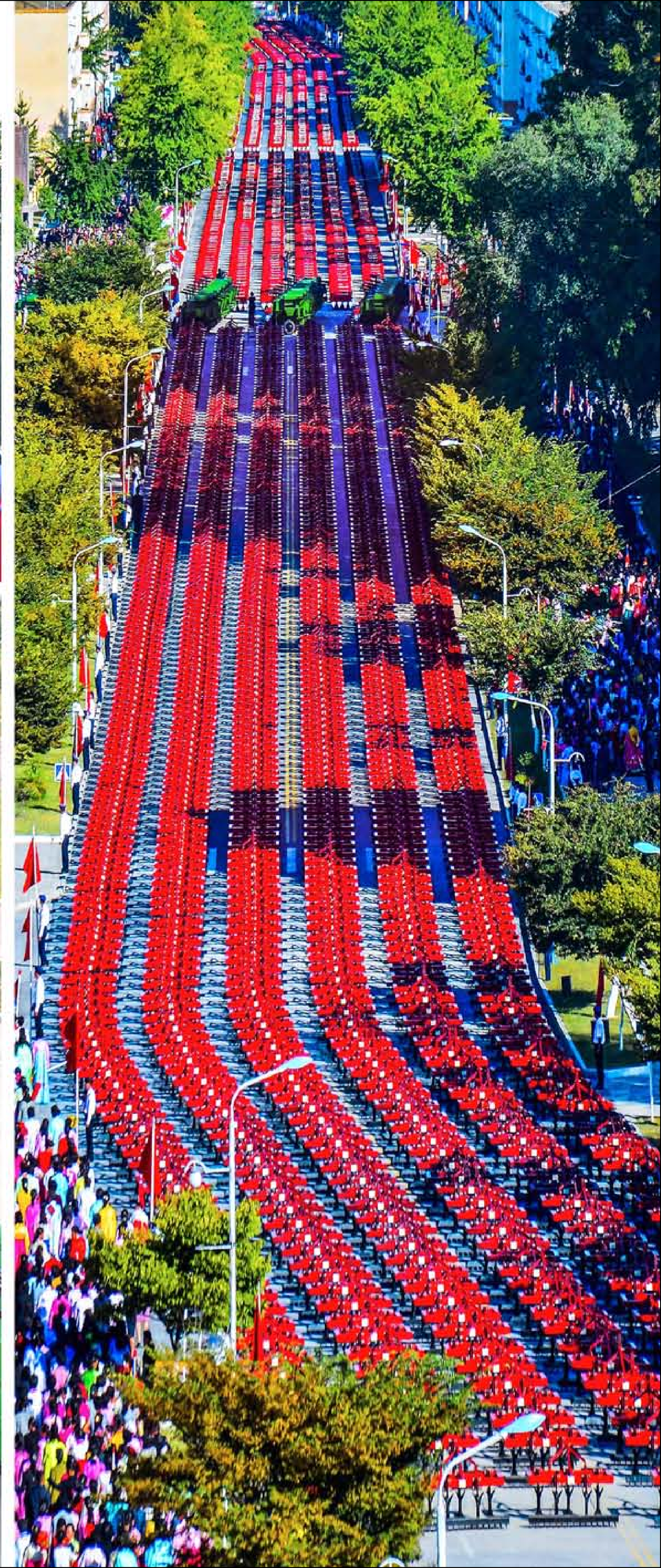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쌀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해주시민들은 은정어린 농기계들을 감격속에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드넓은 전야를 뒤덮고 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그려보며 황남인민들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노래와 춤판을 펼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배려하여주신 농기계들이 재령벌과 연백벌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전야마다에서 벼가을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제6차 로농적위군 지휘성원회의 진행



제6차 로농적위군 지휘성원회의가 8월 29일과 30일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로농적위군 각급 지휘성원들, 사회안전기관 일군들, 민방위보장 및 련관단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6차 로농적위군 지휘성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강순남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기간 로농적위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였다.

보고자는 항시적인 전쟁위협이 떠도는 우리 나라에서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불가결의 중대과업이라고 하면서 모든 지휘성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민방위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언급되였다.

회의에서는 민방위부문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전망계획이 발표되였으며 국가방위력강화와 전민항전준비에서 앞장선 로농적위군 부대들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진행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9월 14일과 15일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 법무부서와 검찰, 재판, 사회안전, 검열감독기관 일군들, 모범적인 법무해설원들, 련관단위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되였다.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과 법무일군들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와 준법교양,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언급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북방의 산간마을 중흥땅을 찾아서

량강도 삼지연시 중흥리는 평균해발높이가 1,300m인 지대에 위치하고있다.

량강도 삼지연시에 중흥농장이 자리잡고있다.

옛날에는 화전민들의 귀틀집 몇채밖에 없던 궁벽한 고장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던 곳이 1960년대부터 점차 개간되여 하나의 농장으로 되였다.

중흥땅의 모습이 완전히 일신된것은 1970년대였다.

2000년대에 다시한번 변모되였던 중흥땅은 몇해전부터 또다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체107(2018)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발전하는 현실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던것이다.

그이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달려온 건설자들은 불리한 자연환경속에서도 방대한 공사를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하여 착공한지 1년만에 북방특유의 농촌마을을 일떠세웠다.

국가에서는 모든 농장세대들에 새집들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중흥농장지구에 건설된 특색있는 농촌문화주택들과 리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한폭의 그림같은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천지개벽된 중흥리와 더불어 이 고장 사람들은 도시부럽지 않는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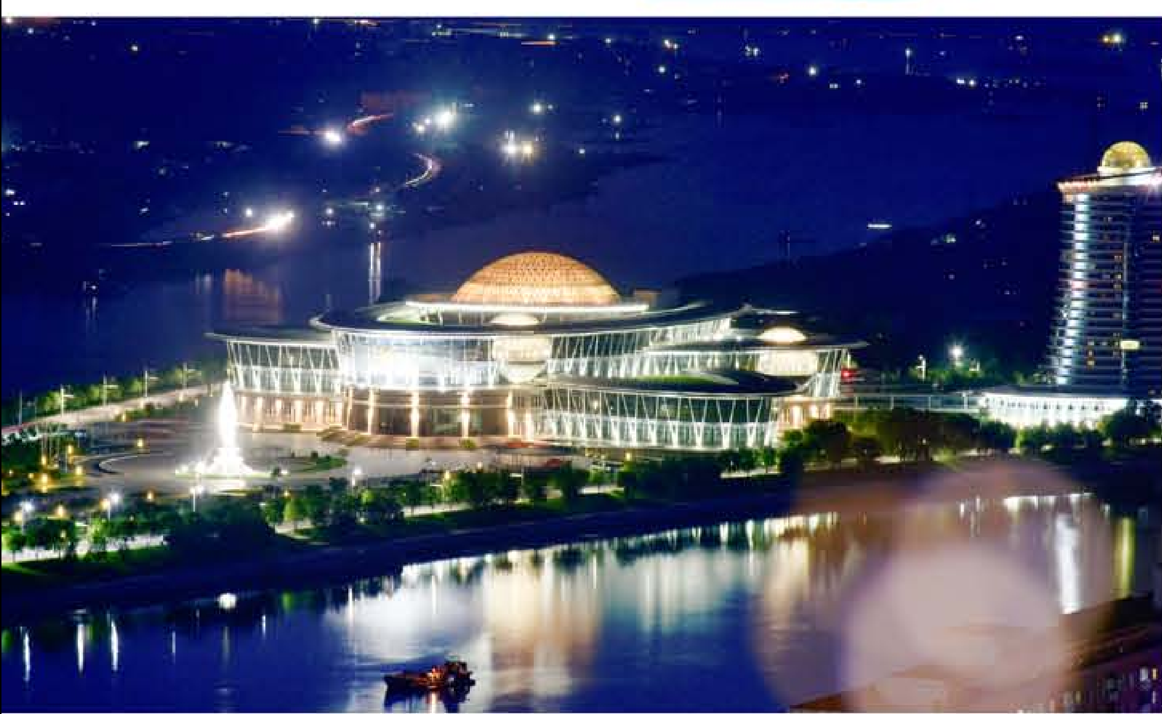


감자와 밀을 기본으로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해마다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고있다.





화보 【오늘의 조선】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
과학기술전당







평양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쑥섬에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불리우는 과학기술전당이 자리잡고있다.

전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인 새 세기에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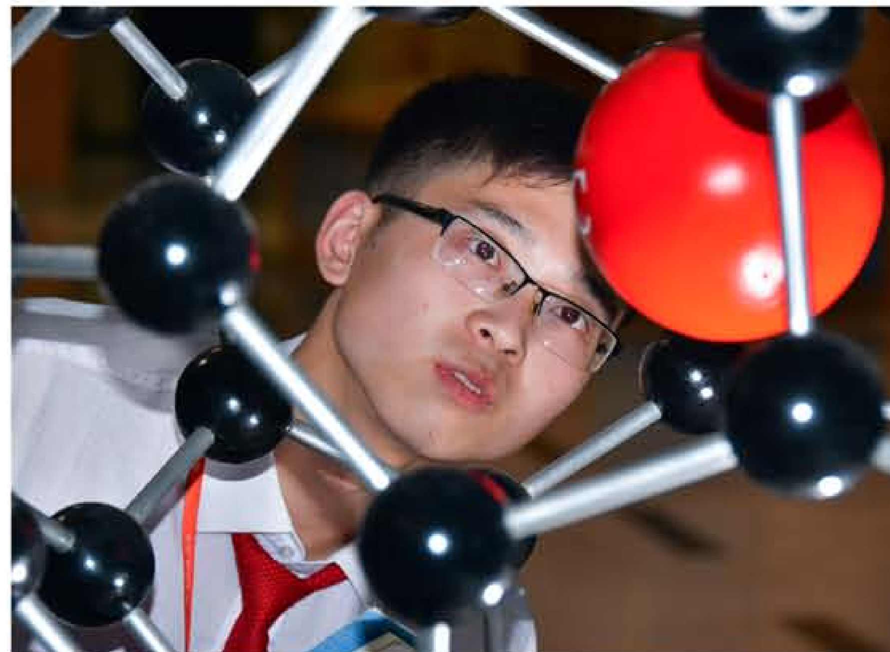
이곳은 과학기술도서들과 최신 과학기술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화되여있는 종합적인 전자도서관과 전시장구역으로 구분되여있다.

열람자들과 참관자들에게 높은 학습효률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곳으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대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연건축면적 10만 6,600여㎡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중심, 학술교류의 거점인 이곳이 전문가들에게는 최신과학기술지식습득의 보물고라면 어린이들에게는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볼수 있는 창문이라고 할수 있다.

주체105(2016)년 1월에 준공된 후 현재까지 이곳을 찾은 열람자들과 참관자들의 수는 연 수백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과학기술전당의 매력은 그에만 있지 않다.

이곳은 각 도의 과학도서관들과 전국의 200여개 시, 군의 미래원, 전자도서관들, 1만 5,000여개의 과학기술학습실들을 련결하는 과학기술보급체계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지금까지 수억건의 최신기술, 정보자료들이 이곳에서부터 온 나라 각곳으로 전달, 보급되고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과학기술전당홈페지를 찾은 열람자수 역시 수없이 많다고 한다.

진정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의 힘찬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열의를 뜨겁게 느낄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이다.

사진 리진혁
글 리진범



과학기술전당에는 누구나 과학기술의 원리와 방법을 깊이 체득할수 있는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과 함께 어린이꿈관도 있다.





웃음넘치는 중앙동물원

중앙동물원의 부지면적은 100여정보이다.
여기에는 수족관, 파충관을 비롯하여 8개의 동물관과 40여개의 동물사들이 있으며 830여종에 1만 1,000여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철과 더불어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있는 중앙동물원이 수많은 참관자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있다.

입을 쩍 벌린 호랑이를 형상한 입구를 보면서부터 탄성을 지르던 사람들은 구내에 들어서면서 보다 큰 희열에 잠긴다.

수만그루에 달하는 여러가지 꽃관목들과 나무들이 우거진 속으로 시원히 뻗어간 도로들을 따라 독특한 건축형식의 동물관들과 동물사들이 곳곳에 자리잡고있다.

동물원참관은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더 기쁜 일이다.

수족관이며 파충관, 조류관 그리고 범사, 곰사, 코끼리사 등 어디를 가보아도 참관자들 대다수가 청소년들이다.

어찌 그들뿐이랴.

손자와 함께 이곳에 자주 온다는 한 로인은 손자애와 같이 동물사들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느라면 자신도 모르게 동심에 잠겨 마음이 젊어지는 것같다고 웃으며 말한다.

수족관옆의 물개재주장이나 원숭이관의 가까이에 있는 동물재주장은 항상 관객들로 초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조교사들의 지시하에 가지가지의



바다세계를 방불케 하는 수족관에는 《아마조나스강의 대식가》로 알려져있는 피라니아와 몸에 있는 무늬가 마치 지도를 형상한것처럼 보이는 지도고기, 금색송어, 푸른바다거부기를 비롯한 진귀한 바다물고기와 민물고기들이 헤염치고있다.

수족관



펭긴새사



기교동작들을 멋지게 수행하는 《출연자》들을 보며 사람들마다 즐거움과 유쾌함을 금치 못한다.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 동물세계의 흥미진진한 모습들이 련속 이어져 100여정보나 되는 구내를 다 돌아보도록 지루함을 전혀 모르고 시간이 어느새 흘러갔는지 모르는 참관자들이다.

꽃마차와 관람용차들을 타고 좋아라 떠드는 어린이들과 청춘남녀들, 곳곳의 청량음료매대들이며 아담한 휴식터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석양속에 동물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류다른 정서를 자아낸다.

60여년전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인민들의 문화휴식장소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속에 주체105(2016)년에 훌륭히 개건되여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 라평렬
글 강수정









중앙동물원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범, 코끼리, 곰, 사자, 기린 등 수많은 동물들에 대한 상식을 넓혀가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조선의 국조 참매

중앙동물원에는 조선의 국조인 참매를 비롯하여 류리금강앵무, 관학, 흰두루미, 검독수리, 번대수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식하고있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다.

중앙동물원



어린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준다

- 해주시 구제유치원을 찾아서 -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3중영예의 모범유치원인 해주시 구제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 그들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고있다.

꿈많은 어린이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오늘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교양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교육교양방법이 날로 개선되여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자라나고있다.

해주시 구제유치원은 최근 10년동안에 주체103(2014)년과 주체106(2017)년 두차례에 걸쳐 자기 모습을 거듭 일신하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2층건물에는 10여개의 교양실들과 함께 종합놀이실, 춤실, 물놀이장, 의무실 등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그러나 구제동의 주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이곳에 자식들을 맡기는것은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서만이 결코 아니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이 지닌 교육자적자질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미처 모르던 자식들의 재능과 앞날을 그려보게 하기때문이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어린이들은 국가적혜택속에 마음껏 뛰놀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유치원에는 15년전부터 글짓기와 무용, 민족악기연주에서 뛰여난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여 전국에 유명해진 교양원들이 있다.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놀음과 장난에서도 재능의 싹을 찾아낼줄 아는 그들이다.

유치원에서는 최근년간 그림그리기, 붓글쓰기, 주산, 외국어, 바둑,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교육을 진행하고있는데 교양원들은 해당한 소질이 있다고 보아지는 어린이들에 대하여서는 집체적인 심의를 거쳐 국가의 의무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과 함께 전문교육을 준다.

하나를 가르치자면 열, 백을 알아야 하듯이 어린이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전문가들 못지않은 수준을 갖춘 이곳의 교양원들이다.

그들은 250여명에 달하는 매 어린이들의 생활과정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찰, 분석하면서 새 교육교양방법을 찾는데도 품을 들이고있다.

그렇게 창안한 많은 교육방법들은 실효가 큰것으로 하여 다른 유치원들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사고력과 관찰력을 높이는데서 좋은 교육방법으로 평가받고 전국에 일반화된 과학놀이는 바로 이곳 원장 강영옥과 지난해 유치원부문의 유일한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강금순교양원이 내놓은것이다.

오늘 이곳 원아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과 경연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높은 실력을 지닌 학생들로

- 모란봉제1중학교를 찾아서 -



모란봉제1중학교 교장 인민교원 박사 김영식

70여년의 연혁을 새겨오는 우리 모란봉제1중학교는 보통교육부문에서 전국에 이름난 학교들중의 하나이다.

주체84(1995)년부터 인재후비육성을 기본으로 하여오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학부형들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교육자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교원들 대다수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이며 근 40%가 학위소유자들이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있다.



학교는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후대교육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의 영예를 지니였다.



총체적으로 모든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고 그들의 지능을 더욱 계발시키는데 지향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선차적으로 중시하는것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이다.

우선 교원들속에서 풍부한 전공지식과 함께 새로운 린접부문의 지식들을 폭넓게 습득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이 현대교육기술,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학생들의 인식능력, 창조적능력을 높여줄수 있는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도입하도록 하고있다.

하여 학교의 교원들은 전국적인 교수경연들에서 자주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그들에 의해 창조되여 전국의 초급, 고급중학교들에 일반화된 교수방법은 최근년간에만도 수십건에 달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에 학교는 안팎으로 또다시 일신되였다.

전문화된 과목교실들이 꾸려지고 학생들이 수업시간표에 따라 해당 과목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여 그들의 인식능력과 창발력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새 에네르기, 물리, 나노기술, 화학탐구실 등과 수경온실을 갖춘 생물공학



조선력사교실에서



새 에네르기탐구실에서



생물공학탐구실에서



물리실험실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의 창조적응용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탐구실을 새롭게 꾸려 학생들이 과외학습과정에 자신들의 착상을 실현해보도록 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전국 제1중학교 학생들의 학과경연들에서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으며 졸업생들모두가 대학으로 진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교육을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들을 참다운 혁명인재,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 사회주의후비대로 키우는것이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인재후비육성의 토대를 더욱 든든히 다지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을 굳건히 받들어나가겠다.

모란봉제1중학교 교장
인민교원 박사 김영식

사진 라평렬


생물교실에서


화학탐구실에서





아득히 뻗어간 청춘과원

-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찾아서 -

강원도에 자리잡은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가을이 왔다.

지난 봄철에 구름같이 하얀 꽃바다를 이루었던 백리과원이 지금은 온통 울긋불긋한 과일바다를 펼치였다.

그윽한 과일향기를 풍기며 사방으로 끝간데없이 늘어선 사과나무들의 가지에 손을 가져다대기만 해도 무르익은 열매들이 뚤렁뚤렁 떨어질것만 같다.

사과알들의 질량은 보통 100～250g이고 최고 500g이 되는것도 있다고 한다.

무겁게 휘늘어진 가지들을 헤치며 사과따기로 드바쁜 처녀들의 모습도 정다웁고 열매들을 한가득 싣고 씽씽 달리는 자동차들의 모습도 흥그럽게 안겨온다.

정녕 이 고산땅의 진짜멋은 수확의 계절에 있는듯싶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창설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종합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려진 곳이다.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농장을 여러 차례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세세년년 과일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과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년초부터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일념으로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의 근로자들이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해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수십t씩 내면서 지력을 높였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도 자체로 생산하여 시비하면서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가지자르기, 병해충구제, 열매솎음 등도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다.

하여 가물과 폭염, 태풍 등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속에서도 끝끝내 황금열매 주렁진 가을을 맞이했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된 과일들은 각지의 인민들에게 가닿는 한편 고산과일가공공장에서 다양한 가공품들로 전환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고산과수종합농장의 과수밭면적은 수천정보이다.









고산과수종합농장에는 다양한 과일가공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도 꾸려져있다.

대동강반에서 만난 로인들





가을풍치가 한껏 어린 대동강반에서 수도시민들의 다감한 정서생활이 흘러가고있다.

수도의 대동강반은 시안의 년로자들의 하루생활이 그대로 펼쳐지는 《무대》나 다름없다.

경쾌한 음악선률에 맞추어 인민보건체조를 하는 모습들이며 유보도를 따라 기운차게 달리기를 하는 모습들은 여유작작하면서도 활력에 넘친 년로자들의 기세를 보여주는듯싶다.

그런가 하면 이른새벽부터 수면우에 드리운 낚시대들의 깜부기를 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년로자들의 모습은 또 그대로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난 공원과 유보도의 화단들사이를 오가며 꽃나무들을 가꾸는 부지런한 로인들의 모습도 새날의 약동을 더해준다.

년로자들의 일과는 매일같이 이렇게 흘러간다.

대동강반의 력사유적들인 대동문과 련광정을 비롯한 곳곳에 이채롭게 꾸려진 공원들에서는 장기와 윷놀이 등 유희오락으로 승벽을 다투는 로인들이 시간의 흐름을 잊은듯 하고 주위에 둘러서서 훈수와 응원에 열이 오른 구경군들도 자리를 뜰줄 모른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의 경기 못지 않게 아슬아슬한 배구경기로 땀을 흘리는 로인선수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고 부부내외가 한팀이 되여 진행하는 바드민톤경기도 볼만하다.

어느덧 저녁이면 손자, 손녀들의 손목을 잡고 불밝은 유보도를 거닐며 웃음짓는 얼굴들이며 휴식터들에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펼친 로인들의 모습들이 유정하게 안겨온다.

국가의 혜택속에 인생의 로년기에도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년로자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는 대동강반이다.

사진 최원철, 황정혁
글 박의철



인민보건체조, 달리기, 건강태권도 등 아침운동을 하고있는 로인들의 모습은 대동강반의 풍치를 이채롭게 하여준다.



년로자들은 인생의 로년기에 살고있지만 국가의 혜택속에 누구나 다 활력에 넘쳐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동해의 명승
총석정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군 읍바다기슭에 있는 명승지로서 화산작용에 의하여 지표면으로 뿜어나온 현무암이 랭각응축되면서 6각, 8각으로 쪼개진 후 오래동안 바다물과 비바람에 씻기우고 깎이여 이루어진것이다.

이 일대에는 6각, 8각기둥 등 현무암기둥들이 바다가를 따라 1, 000m구간에 우뚝우뚝 솟아있다.

총석정의 해돋이와 은빛색의 달빛으로 물들여진 총석정의 밤경치는 특이한 황홀경을 이룬다.

13606-2280190



내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